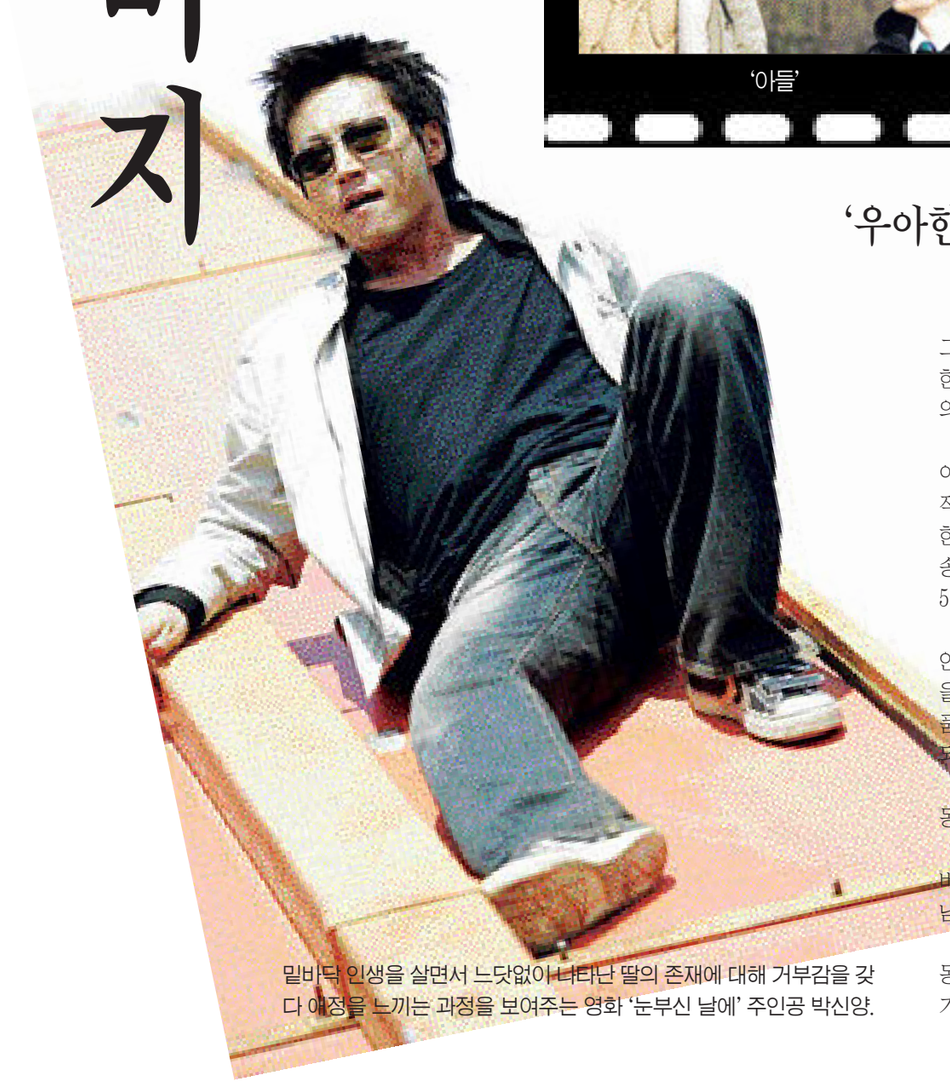
아버지

올해 한국영화 키워드 부상

어머니가 가고, 아버지가 온다. 올해 한국영화계에서 유난히 '부성애'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형' '말아톤' '해바라기' '열혈남아' '허브' 등 지금껏 모성애가 담긴 영화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 눈에 띄는 현상이다.

'아들' '우아한 세계' '마이 파더'

'우아한 세계' '눈부신 날에' 등 부권 상실시대 찡한 감동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느닷없이 나타난 딸의 존재에 대해 거부감을 갖다 애정을 느끼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 '눈부신 날에' 주인공 박신양.

박진표 감독의 '그놈 목소리'가 아들을 유괴당한 부모,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버지의 감정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데 이어 송강호 주연의 '우아한 세계'와 박신양 주연의 '눈부신 날에'가 4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연애의 목적'으로 주목받은 한재림 감독의 차기작 '우아한 세계'는 조직폭력배가 평범한 아버지로 등장한다. 직업이 조직폭력배일 뿐 영화의 내용은 부성애를 주제로 한다. 평범한 일상을 연기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송강호가 그려낼 조폭 아버지의 모습에 관심이 간다. 4월 5일 개봉 예정.

4월19일 개봉 예정인 '눈부신 날에'는 박신양이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느닷없이 나타난 딸의 존재에 대해 거부감을 갖다 애정을 느끼는 과정을 보여준다. 박광수 감독 작품으로 자신밖에 몰랐던 '양아치' 인생이 딸로 인해 변화되는 모습을 그린다.

5월에는 장진 감독의 '아들'과 정진영 주연의 '날아라 허동구'가 기다리고 있다.

차승원이 15년 만에 단 하루의 휴가가 허락된 무기수 아버지로 출연해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과의 가슴 설레는 만남을 보여준다. 아버지의 서툰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날아라 허동구'는 야구선수가 꿈인 IQ 60의 11살 아들 동구와 동구의 유일한 친구인 아버지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다.

또 백윤식, 이문식 주연의 '성난 황소'도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털게된 초짜 강도 아버지와 비리경찰의 꼬이고 꼬이는 하루를 담았다. 5월 개봉 예정.

다니엘 헤니의 차기작 '마이 파더'도 입양아와 사형수 아버지의 만남을 주제로 한 작품. 김영철이 아버지 역을 맡았으며, 친부모를 찾아 한국에 온 입양아가 사형수인 아버지와 만나는 가슴 울컥한 부정을 그린다.

신현준, 허준호가 주연을 맡은 '귀휴'는 희귀병에 걸린 친구의 딸에게 간 이식을 해주기 위해 고향으로 간 무기수 살인범 태주와 태주의 옛 친구이자 형사인 영우의 애절한 부성애를 담는다. 한국영화는 아니지만 지난 1일 개봉한 윌 스미스의 '행복을 찾아서' 역시 부성애를 주제로 한 작품이다. 월스트리트의 성공 신화로 여겨지는 크리스 가드너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으로, 빈털털이가 된 아버지가 온갖 역경에도 아들과의 믿음, 사랑을 지켜가는 내용이다.

영화적 장치를 위해 사형수, 조직폭력배 등 다소 극적인 직업을 택하고 있지만 부성애라는 기본적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

이같은 '아버지 영화' 붐에 대해 '아들' 제작사인 필름있수다 기획실 관계자는 "단순히 가족 영화를 벗어나 아버지를 통해 부권이 상실됐다는 이 시대 아버지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생일대 최대의 환상 마술쇼

주목! 이 영화 '일루셔니스트'

한 여인을 사이에 두고 권력에 눈먼 황태자와 매혹적인 마술사가 펼치는 세기의 대결을 그린 미스터리 로맨스물이다.

19세기 비엔나. 마술에 매료된 소년 아이젠하임은 귀족의 딸 소피와 사랑을 나누지만 신분의 벽에 부딪쳐 헤어지게 된다.

소년은 세계적인 마술사가 되어 그녀를 찾겠다고 결심하고 10년이 흐른 뒤 도시는 마술사 아이젠하임의 경이로운 마술쇼로 들썩 거린다.

약혼자인 황태자 레오폴드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소피가 자신의 연인임을 알아본 아이젠하임은 그녀와 위험천만한 사랑을 시작하고 흉포한 황태자로부터 소피를 구하기 위해 무대 위로 죽은 이의 영혼을 부르는 일생일대 최고의 환상 마술을 준비한다.

주인공 마술사로 분한 에드워드 노튼의 연기가 눈에띈다. 마술의 경이로움을 표현한 환상적이고 현란한 시각효과가 인상적인 작품으로 아카데미 촬영상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었다. 〈15세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희 영화 '궁녀' 주인공 캐스팅

박진희〈사진〉가 미스터리 궁중괴담을 표방한 영화 '궁녀'(감독 김미정, 제작 영화사 아침)의 주인공 내의녀 천령 역에 캐스팅됐다.

'궁녀'는 조선시대 한 궁녀의 죽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궁궐의 미스터리를 담는 작품. 박진희가 맡은 천령 역은 정의로운 성격과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으며, 서까래에 목을 매 죽은 궁녀를 부검하던 중 궁녀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임을 의심하고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쳐 간다.

그밖에 '궁녀'에서는 '무도리' 등에 출연한 서영희, 드라마 '프라하의 봄'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윤세아, 드라마 '은실이'의 주인공이었던 전혜진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궁녀'는 이준익 감독의 '황산벌' '왕의 남자' 연출부 출신인 김미정 감독의 데뷔작으로 이달 중순 크랭크 인할 예정이다.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일루셔니스트 마술을 소재 삼아 풀어내는 미스터리 멜로물.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하미
스모킹 에이스 100만달러의 상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액션물.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CGV(상무·첨단), 하미, 씨너스 전대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휴 그랜트, 드류 베리모어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좋지아니한가 '말아톤'의 정윤철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독특한 가족 이야기.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한니발 라이징 한니발 렉터 박사의 탄생기를 다룬 공포물.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첨단), 씨너스 전대, 하미, 프리머스 제일
행복을 찾아서 노숙자에서 월스트리트 투자자로 성공한 인물의 실화를 다룬 드라마.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홀라걸스 일본 소녀들의 유쾌한 성장기. 12세 관람가.	메가박스, CGV 상무
바벨 9·11 이후 세계를 들여다본 영화.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콜롬버스(하남), CGV(상무) 하미
드림걸즈 슈프림스의 실화를 모태로 한 뮤지컬 영화. 12세 관람가.	롯데(광주),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1번가의 기적 철거 위기에 놓인 달동네에서 벌어지는 기적같은 이야기로 임창정·하지원이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씨너스 전대, 스타박스, 하미
복면달호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록가수 이야기로 개그맨 이경규가 제작을 맡아 화제가 된 작품.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씨너스 전대, 스타박스, 하미
마강호텔 대량실직 당한 조폭들의 좌충우돌 호텔 경영기. 15세 관람가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프리머스 제일, 씨너스 전대, 하미, 스타박스
텍사스 전기톱 연쇄 살인사건 0 인간 도살자 레더 페이스의 출생과 성장을 다룬 공포물. 18세 관람가.	롯데(첨단),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씨너스 전대, 스타박스, 하미
바람피기 좋은날 유부녀들의 일탈을 그린 영화로 김혜수·윤진서 주연. 18세 관람가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하미